

1.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 서류는 아직 ()를 받지 못 하였다
시위대와 경찰이 ()했다.
그 사람은 재산 ()혐의로 고발 당했다.

- ① 결재(決裁), 추돌(追突), 은둔(隱遁)
- ② 결재(決裁), 충돌(衝突), 은닉(隱匿)
- ③ 결제(決濟), 추돌(追突), 은둔(隱遁)
- ④ 결제(結濟), 충돌(衝突), 은닉(隱匿)

[정답] ②

[해설]

- 결재(決裁) -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 결제(決濟) -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 추돌(追突) -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
- 충돌(衝突) -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섬
- 은닉(隱匿)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 은둔(隱遁) - 세상일을 피하여 숨음

■ 손정호 열림국어 심화편 I(문법편) P. 398

2. 다음 중 발음 과정에 나타난 음운 변동 규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신라[실라] ㉡ 해돋이[해도지]

- ㉢ 유음화 ㉣ 구개음화
- ㉤ 구개음화 유음화
- ㉥ ㄴ 첨가 구개음화
- ㉦ ㄴ 첨가 ㄹ 탈락

[정답] ①

[해설] 유음화-'ㄴ'이 'ㄹ'의 앞뒤에서 'ㄹ'로 동화되는 현상
구개음화-혀끝소리 'ㄷ, ㅌ'이 'ㅣ'모음을 만나 구개음 'ㅊ, ㅌ'으로 동화되는 현상

■ 손정호 열림국어 심화편 I(문법편) , P. 54

3. 다음 중 지문과 입장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지문

- ① 기록함으로써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 ② 한 번의 실수로 지나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 ③ 상과 벌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다.
- ④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복원이 명확하지 않음

4.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울산 - Ulsan
- ② 설악 - Seorak
- ③ 종로 - Jongno
- ④ 호법 - Hobeob

[정답] ④

[해설] 호법 - Hobeop

■ 손정호 열림국어 심화편 I(문법편) P. 357

5. 다음 중 가전체 문학 작품과 의인화된 사물을 짝지은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국순전 - 술
- ② 공방전 - 엽전
- ③ 저생전 - 돼지
- ④ 정시자전 - 지팡이

[정답] ③

[해설]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이다.

■ 손정호 열림 국어 기본서 P. 323

6. 다음 중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를 고르시오.

- ① 소화기 ② 인화성
- ③ 안전모 ④ 방열복

[정답] ④

[해설] ① 소 화 기 (6개) ② 인 화 성 (4개) ③ 안 전 모 (7개) ④ 방 열 복 (8개)

■ 손정호 열림국어 심화편 I(문법편), P. 40

7. 다음 보기 중 어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소녀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 '드렸다'는 주체 높임법이다.
- ② 선생님은 딸이 계시다. - '계시다'에서 '있으시다'로 바꾼다.
- ③ 기한이 되시면 맞춰 주세요. - '되시면'을 '되면'으로 바꾼다.
- ④ 저희 나라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바꾼다.

[정답] ①

[해설] '드리다'는 객체높임의 어휘이다.

■ 손정호 열림국어 심화편 I(문법편), P. 164~165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씨'

- ①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다.
- ② 부조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②

[해설]

- 시적화자 - 구자명 씨의 삶을 관찰하는 이
- 시적상황 - 가사 노동과 직장 생활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구자명 씨의 삶을 관찰함
- 시의 정서·태도 - 구자명 씨의 삶에 대한 애환을 연민의 태도로 바라보면서 현실비판적 성격도 가지고 있음. 시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구자명 씨는 이 시에서 가사와 직장 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 모두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표현상의 특징 - 개인의 모습에서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여성의 모습으로 시상이 확대됨
- 주제 -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14.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千世(천 세) 우희 미리 定(정)헌산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헌샤 卜年(복년)이 조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헌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남급하, 아르쇼셔. 落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미리 定(정)헌산'은 하늘이 미리 정했다는 내용이다.
- ②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 ④ 산행은 '등산'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④

[해설] 용비어천가 125장이다. 산행(山行) : 사냥. '山行'은 고유어 '산행'을 한자로 빌려 쓴 차자(借字)이다.

[전문해설]

천 년 전에 미리 (도읍지로) 정하신 한강 북쪽 땅[한양]에 인덕(仁德)을 쌓아 개국하시어 점지해 받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그러나) 성자신손(성군의 자손)이 대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부지런히 힘쓰셔야, (국권이) 더욱 견고하실 것입니다.
후대 임금이시여,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아소서. [하(夏) 나라 태강왕이]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어 (백 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드디어 폐위를 당하였으니, 태강왕 당신은) 할아버지[우왕(禹王)의 덕망]만을 믿었습니까?

■ 손정호 열림국어 기본서, P. 334

15. 다음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른 산이 흰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다.
- ③ 어조 변화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④ 밝음과 어둠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이 시는 현실 생활이 어려워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이상을 지니고 나아가려는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인은 두 세계를 대립시켜 설정해 놓았다. 식민지적 상황을 자연에 비유하고(저문 들길)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매개물로 자연의 사물(푸른 별)을 설정하고 있다. 어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직설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 손정호 열림국어 기본서, P. 537

16.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紅塵(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뭇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장리쌀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빚만 늘어가게 되자. 올해는 벼를 베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① 내버려두면 아무 일 없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입게 된다. ② 집 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손님 대접하기가 어려운 터에 손님이 속을 알아주어 빨리 돌아가니 고맙게 여김 ④ 정작 수고하여 일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보수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말.

* 제 것을 도둑질하는 슬픈 아이러니-자신(응오)의 벼를 훔쳐야 하는 상황이 식민지 농민의 비애였다. 농사지어 타작해 보았자 모두 빼앗기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 먹고는 앓었다고 하는 것이 벼 한 톨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엄청난 모순이 당대의 삶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주인이 자신의 벼를 도둑질하는 그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다. 이 아이러니는 여유 있는 웃음이 아니라 애잔한 비애 즉, '슬픈 웃음'인 것이다.

20. 다음 자료를 읽고 조선시대 상속에 대해 알 수 없는 내용은?

[복원미흡] 조선시대 상속에 대한 지문

- ① 조선에는 재산 내용에 관한 기본 법전이 있었다.
- ② 고려시대에는 재산이 많은 여성이 있었다.
- ③ 첩의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하였다.
- ④ 재산 분배에 있어 유일한 차별은 장례를 지내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정답]
[해설] 복원미흡